

철저한 보험계약



취재 : 이 두 홍 <홍보 2 과장>

기업규모의 국제화와 품질수준의 최고화를 회사의 장기경영방침으로 설정하고 있는 한국타이어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속의 한국타이어로 발돋움하려는 웅대한 꿈이 실현되고 있는 현장은 바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65번지.

지난 1941년 국내 최초의 타이어 제조공장으로 설립된 한국타이어는 8.15해방과 6.25동란을 겪는 동안 애써 이복한 사업기반을 잃는 등 어려운 창업초기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1957년 전쟁의 여파로 폐허가 된 공장을 복구하면서부터 외제품과 군수품이 난무하던 당시 국내 타이어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 나갔으며 국산품의 생산공급으로 국민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2만여평의 대지위에 건립된 한국타이어는 1967년 효성그룹의 한 가족이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경영면에서 일

대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과감한 시설투자와 기술개발로 69년에는 스노우타이어, 70년에는 튜브레스타이어를 국내 최초로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계속 선진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남보다 빨리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72년 수출의 날에는 국무총리표창을, 74년에는 산업포장, 75년에는 동탑산업훈장을 각각 수상하게 됐다.

나아가 80년 8월에는 같은 업계에서는 최초로 대망의 수출1억불담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철저한 방화관리

한국타이어의 방화시설과 방화대책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

매월 20일에 실시하는 자체점검에서는 소방설비 전반에 걸쳐 파손과 변형유무를 확인하고 피난설비와 경보설

비용에 대하여도 외관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소화설비에 대한 검사는 년1회, 그리고 피난설비 및 경보설비등은 연4회에 걸쳐 작동 및 성능시험을 각각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설비 전반에 대한 정밀검사는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실시한다.

예방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년2회의 자체검사에서는 건축물, 화기사용설비, 위험물설비, 전기설비등이 모두 체크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방화시설의 검사와 함께 종업원에 대한 방화교육 역시 철저하다. 대형화재 예방대책과 소방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정실교육이 매분기말 전종업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매월 민방위의 날에는 소방설비등의 작동 및 사용방법을 실습을 통하여 몸에 익히도록 하고 있다.

보험가입 실태와 현황

한국타이어는 영동포공장, 대전공장, 인천공장등 3개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 3개 공장에서 가입한 보험은 건물과 기계, 동산인체에 대한 화재보험은 물론 기계기관보험, 동산종합보험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러한 각종 보험에 불입하는 보험료만도 연간 4억 4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기대한 공장을 가동운영하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각종 위험이 따를 것이다. 이같은 위험에 대비하여 완벽하게 보험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영진의 보험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국타이어의 보험가입 실무책임자를 맡고있는 梁政五(41세) 경리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장님이하 경영진의 보험에 대한 관심은 대단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은 완벽하고 확실하게 체결하고 공장이 이재를 당하였을 때에는 보상받은 보험금으로 그 공장을 현상태로 완전히 복구할 수 있도록 충실한 계약이 되도록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이러한 기본방침과 관심때문에 우리 실무자는 보험에 관한 연구와 공부를 게을리 할 수 없어 계속 노력하다보니 지금은 보험에 관한한 박사가 다 되었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가액에서 부터 요율과 각종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꼭 우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또 보험계약의 필요성을 각 분야별 현장담당자와 책임자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들에게 보험과 화재예방 교육을 함께 시키고 있습니다. 83년도 부터 처음으로 실시한 이 교육이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근무하는 책임자

가 그 건물의 각종 위험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보험계약시 물건선별방법, 위험도판단, 보험가액산출 방법등에 대하여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제도에 대한 느낌은 어떨까 하고 물어보았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취급하는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은 화재사고외에 별도의 특약없이도 화재로 인한 제삼자의 인명피해와 풍수재, 폭발등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제도 자체는 매우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1년에 한차례 실시하는 안전점검외에 별다른 서비스가 없는데 화재보험협회에서는 계약자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험약관 및 소방법의 개정 사항이나 보험계약에 따른 교육은 물론 안전관리지도등의 서비스를 강화해 주었으면 합니다.

梁부장은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험인식은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보험에 관심이 많고 한 두가지의 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있는것 같아요.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보험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관계당국이나 협회에 대해 더 하고싶은 이야기가 들림없이 있을것 같아 다시 질문을 던져보았다.

「보험료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하는 지출인 동시에 확실한 보상을 위한 지출로써 기업보험이 아닌 개인부담의 각종 보험료에 대해선 전액 세제상의 공세 혜택이 주어져야 마땅합니다. 이는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협회에서는 계약자에게 각종 서비스강화와 함께 관련물건에 대한 위험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도 지적을 위한 점검을 지양하고 요율의 개선사항이나 위험이 현저한 부분의 기술지도와 적정한 보험가액 산출기준등 실제 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점검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처럼 梁부장이 보험과 방재에 대해 남달리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들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대연호텔 화재현장을 그가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타이어가 보험계약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닌것 같다. ■